

## Effects of Global Competen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verseas Volunteers

Yeon Yun<sup>#</sup>, Og Cheol Lee<sup>+</sup>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the global competency levels of overseas volunteers affecte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147 volunteers who were selected from the World Friends Korea members and are currently volunteering overseas. On average, participants' global competency level was moderate, and the most influential sub-factors included cross-cultural acceptance and challenging spirit. Psychological well-being sub-factors was highly associated with their life goals and personal growth, and global competency sub-factors such as glob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flexibility, stress tolerance, and challenging spirit significantly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clusion, the higher participants' global competency levels were, the higher was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Futu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develop not only a quantitative tool to measure overseas volunteers' global competency, but also a qualitative study to better underst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global competency, overseas volunteering, psychological well-being, voluntee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같은 해 정부는 본격적인 해외봉사단 사업을 위해 각 행정부처에 소속되었던 해외봉사단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산하 단

일 브랜드인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로 통합하였다. KOICA는 1991년에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전담하고 있는데, 해외봉사단 파견은 기술협력 부분에 해당되는 국민 참여형 사업으로서, 교육·보건의료·정보통신·농촌개발 등 분야별로 봉사단원을 파견해오고 있다(KOICA, 2014).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봉사단원은 총 96개국에 파견되었으며, 인원은 55,763명으로, 주로 아시아(76.2%)에 파견되었다(KOICA, 2017). 해외봉사단원은 자발적인 참여로 파견되어, 나눔과

<sup>#</sup> The 1st author: Yeon Yun, Tel. +82-2-2258-7420, Fax. +82-2-532-6537, e-mail. rnyeonyn@gmail.com

<sup>+</sup> Corresponding author: Og Cheol Lee, Tel. +82-2-820-5974, e-mail. leeoc@cau.ac.kr

섬김의 정신으로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지만,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다양한 문화충격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Arnold, 1967). WFK 출범 이후 2015년까지 현지에 파견된 16,169명 중 중도귀국자는 848명이었으며, 주요 사유는 개인 사유, 질병, 현지 부적응 등이었다(KOICA, 2017). 중도귀국자가 아니더라도 해외봉사활동 중 단원은 신변의 안전, 질병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의 고충을 겪게 되는데, 이는 해외 선진사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Bhatta, *et. al.*, 2009; Lough, 2011; Ohashi, 2015). 이와 관련하여 국내 WFK 단원을 대상으로 파견 중 또는 귀국 후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편으로, 파견기관인 KOICA는 연구용역을 통해 봉사단원의 22.1%가 귀국 후 사후관리로서 심리정서 지원을 필요로 함을 보고한 바 있다(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2015). 이는 미국 평화봉사단이 정신건강 부서를 두어 우울증, 분노, 외상경험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Peace Corps, 2016).

최근 심리적 건강은 정신건강을 다루는 단순한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요소의 합으로서(Ryff, 1989),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동조절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01). Ryff (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과거 주관적 안녕감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 성숙도 등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유이다(Hwang & Jang, 2012; Choi & Sung, 2013; Jun, *et. al.*, 2015).

한편, 해외봉사단원은 파견기간 동안 이문화에 적응하고 성장배경이 다른 현지인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활동과 달리, 글로벌 역량이 요구된다(Gong, 2015; Kim & Jung, 2017).

글로벌 역량은 다문화 효능감, 이문화 감수성, 글로벌리제이션 역량, 글로벌 마인드 역량 등의 유사 개념으로 다양한 구성요인에 의해 측정된 바 있다(Hett, 1993; van der Zee & van Oudenhoven, 2000). 국내에서는 글로벌 인재 역량으로서, 영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력, 자기 표현력, 문화적 개방성, 글로벌 활동을 포함하거나(Shin & Noh, 2013), 기업 인재 선발을 위해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가 개발된 바 있다(Roh, *et. al.*, 2012). 글로벌 역량은 단시간 내 축적되기 어려운 관계로,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적합할 것이다.

해외봉사단원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관리, 외국어 능력, 직무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만족도 등을 다룬 양적연구(Sung, 2006; Youm, 2007; Yun, 2014; Kim, 2016)와 국제자원봉사단원의 활동 사례와 간호단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Oh, 2014; Kim & Jung, 2017)등이 진행된 바 있다. 연구결과 중 단원의 해외활동 중 심리적 안녕감은 해외봉사단원의 만족도와 연계되며, 단원의 만족도는 선발과정부터 파견활동까지 지도·감독·관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ng, 2006; Youm, 2007; Kim, 2016; Kim, 2017).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나 후발주자에 속한다.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봉사단 파견이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증진뿐만 아니라 해외봉사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 라는 이중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연관성과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파견의 효율성 및 단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개선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KOICA를 통해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봉사단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 수준을 파악한다.
- 2) 해외봉사단원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파악한다.
- 3) 해외봉사단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 4) 글로벌 역량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역량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의 대상자는 WFK의 단원으로서, 국내 교육을 마치고 해외에 파견되어 2개월간의 현지적응 훈련 후, 활동 중인 자로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로 t 검정을 적용하였을 때, 111명이 산출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총 147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 3. 자료 수집

WFK 봉사단원의 해외 파견 인원은 2016년 5월 27일 기준 1,230 명으로 파악되었으며, 1,091 명의 단원이 가입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와, 추가적으로 20여 개국의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동의서에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한 자를 참여자로 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였다. 회신된 설문지는 총 147부였다.

## 4. 연구 도구

### 1) 글로벌 역량

‘글로벌역량척도(Global Competency Scale, GCS)’는 Roh, *et. al.*(2012)이 해외주재원 선발과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를 위해 사전에 주저자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도구는 도전정신, 인지적 유연성,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대처, 이문화 수용 등 6개 하부요인에 대해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 높음을 나타낸다. Roh, *et. al.*(20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Gong(2015)의 연구에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 2)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et. al.*(2001)이 46개의 문항으로 번안 수정한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해 사전에 주저자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도구는 자아수용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 지배력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 등 6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말한다. Kim, *et. al.*(2001)의 도구를 사용한 Jun, *et. al.*(2015)의 연구에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3) 두 변수의 모형 적합도

잠재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확증적 요인분석

을 수행한 결과,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모형의 적합도(model fit)는 두 변수 모두 매우 높은 부합도를 보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 $\chi^2=4.708$ ,  $p=.859$ , CFI=1.000, RMSEA=0.000, GFI=.995)은 글로벌 역량( $\chi^2=7.965$ ,  $p=.538$ , CFI=1.000, RMSEA=0.000, GFI=.928)은 보다 더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은 다변량 변수로서 각각의 잠재변수의 영향력이 적합한가에 대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두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5) 글로벌 역량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6)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역량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위험성에 대해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1041078-201604-HR-082-01). 자료 수집은 HTML 기반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자료수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처리하였다. 그밖에 응답지의 다운로드와 자료처리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간호학 교수 1인

과 대학원생 2인의 검토를 거쳤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69.4%)가 남자(29.2%)보다 많았다. 연령은 23세부터 7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20대가 46.2%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35.57 \pm 12.83$ 세였다(〈Table 3〉). 이는 WFK가 파견대상자를 대학생부터 은퇴한 전문직업인까지 다양하게 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파견되어 2개월간의 현지적응 훈련기간을 제외한 활동기간은 평균  $12 \pm 8.87$ 개월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19.7%로 다음 순이었다.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도 3.4%를 차지하였다.

파견분야는 교육분야(59.2%)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14.3%), 공공행정(13.6%), 농림수산(6.8%), 산업에너지(5.4%) 순으로 많았다. 해외봉사 참여 동기는 자기개발(34.0%)이 가장 많았으며, 이문화 체험(28.6%), 봉사실천(17.7%) 순으로 많았다. 한편, 한국에서 직장 경험 후 해외봉사를 지원한 경우는 81.0%였으며, 응답시점에서 해외봉사 파견이 처음인 경우는 68.7%였다. 참여자 중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해외봉사를 나가겠다는 경우는 86.4%였다.

### 2. 글로벌 역량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61 \pm 0.40$ 점이었다(〈Table 1〉). 이는 동 도구를 개발한 Roh, et. al.(2012)과 문항타당도를 검증한 Gong(2015)의 연구결과에서 언급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나, 보통 수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역량의 6개 구성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문화 수용( $4.03 \pm 0.58$ )이 가장 높았으며, 대인 유연성( $3.15 \pm 0.66$ )이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이문화 수용 요인 내 '나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

고 있다(4.22±0.86)와 ‘새로운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한다(4.04±0.88)’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도전정신 요인 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4.04±0.86)’가 다음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에 있어 이문화 수용과 도전정신에 해당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해외봉사단원의 현지적응이란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가는 과정(Oh, 2014; Kim, *et. al.*, 2017)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지적 유연성 요인 내 ‘나는 상대방이 원한다면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다(2.77±1.15)’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업무 완수를 위해, 공식적인 권한 없이도 행동을 취하고, 개인적인 위험부담을 감수한다(3.04±1.09)’가 다음 순으로 낮았다. 이는 Roh, *et. al.*(2012)의 도구개발이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였기에 유연성이 과업을 이행하고 기업이윤을 내는데 필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해외봉사자의 경우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개인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Kim & Jung, 2017). 또한, 치안이 불안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WFK 해외봉사단원은 파견 전 신변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일탈 행동을 삼가도록 한 학습효과로 판단된다.

Table 1. Global competency level of participants (n=147)

Factors	Mean±SD
Challenge spirit	3.96±0.64
Cognitive flexibility	3.37±0.70
Global self-efficacy	3.74±0.64
Interpersonal flexibility	3.15±0.66
Stress tolerance	3.70±0.66
Cross-cultural acceptance	4.03±0.58
Total Mean±SD	3.61±0.40

###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46개 문항 중 23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7±0.46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

호사를 대상으로 측정된 Choi & Sung(2013)의 연구에서 3.45점, Jun, *et. al.*(2015)의 연구에서 3.03점을 보인 것보다 높은 점수로서, 해외봉사단원의 심리적 안녕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참여자의 86.4%가 해외봉사활동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 것과는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개 요인 중 삶의 목적(3.96±0.59)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자율성(3.49±0.56)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Table 2〉).

문항별로는 개인적 성장 요인 내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4.46(±0.63))’와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33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Kim & Jung(2017)의 연구에서 2년 이상 해외봉사단원으로서의 경험을 ‘긍정적 삶의 원동력’으로 여긴다는 점과 일치하였다. 반면에, 자율성 요인 내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3.12±1.00)’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정적 경향으로 보긴 어렵다.

Table 2.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of participants (n=147)

Factors	Mean±SD
Self-acceptance	3.70±0.64
Purpose in life	3.96±0.59
Autonomy	3.49±0.56
Environmental mastery	3.69±0.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3.86±0.62
Personal growth	3.91±0.54
Total Mean±SD	3.77±0.46

###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글로벌 역량은 성별( $t=2.24$ ), 파견기간( $F=2.32$ ), 재파견 의사( $t=-2.45$ )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파견기간이 24개월 이상일 때, 그리고 재파견 의사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글로벌 역량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p<.05$ ).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 $F=2.92$ )과 학력( $F=2.85$ ), 직업경험 유무( $t=-2.1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0대,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 그리고 파견 이전 직장 경험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05$ ).

ANOVA 분석을 통해 글로벌 역량에서는 파견기간이,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학력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global compet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47)

Descriptor	Classifications	n(%)	Global Competency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3(29.2)	3.72±0.39	2.24 (.026)	3.81±0.37	0.83 (.407)
	Female	102(69.4)	3.56±0.39		3.72±0.49	
	No response	2(1.4)				
Age(year)	M±SD	35.57±12.83				
	20 ~ 29	68(46.2)	3.56±0.38	1.49 (.196)	3.65±0.48	2.92 (.016)
	30 ~ 39	41(27.9)	3.58±0.43		3.86±0.43	
	40 ~ 49	11(7.5)	3.61±0.58		3.74±0.57	
	50 ~ 59	9(6.1)	3.77±0.34		3.86±0.32	
	60 ~ 69	14(9.5)	3.82±0.25		4.09±0.30	
	70≤	2(1.4)	3.61±0.40		3.77±0.03	
	No response	2(1.4)				
Education	High school	9(6.1)	3.64±0.48		2.32 (.059)	
	Undergraduates	5(3.4)	3.52±0.26	3.59±0.62		
	Bachelor degree	95(64.6)	3.59±0.39	3.74±0.46		
	graduate school	8(5.5)	3.36±0.34	3.48±0.37		
	Master degree	29(19.7)	3.78±0.40	3.99±0.42		
	No response	1(0.7)				
Working period (Months)	M±SD	12±8.87				
	<6M	31(21.1)	3.54±0.39	2.57 (.041)	3.83±0.50	2.30 (.062)
	6 ~ <12	46(31.3)	3.70±0.38		3.87±0.46	
	12 ~ <18	38(25.8)	3.49±0.35		3.59±0.40	
	18 ~ <24	17(11.6)	3.67±0.51		3.73±0.46	
	≤24	12(8.2)	3.81±0.40		3.88±0.49	
No response	3(2.0)					
Specialty area	Education	87(59.2)	3.60±0.39	0.55 (.697)	3.75±0.46	0.13 (.971)
	Public health	21(14.3)	3.65±0.41		3.76±0.49	
	Public administration	20(13.6)	3.57±0.46		3.77±0.50	
	Industry & energy	8(5.4)	3.80±0.40		3.86±0.28	
	Agriculture & fishery	10(6.8)	3.58±0.36		3.81±0.46	
	No response	1(0.7)				
Reason for volunteering overseas	Personal reasons	13(8.8)	3.63±0.31	1.65 (.166)	3.83±0.36	1.46 (.216)
	Cross-cultural experience	42(28.6)	3.51±0.35		3.69±0.35	
	Self development	50(34.0)	3.68±0.40		3.82±0.47	
	Practicing of volunteering	26(17.7)	3.70±0.43		3.84±0.54	
	Interest in global poverty	12(8.2)	3.50±0.53		3.53±0.65	
	No response	4(2.7)				
Job before	Yes	119(81.0)	3.64±0.41	-1.26 (.209)	3.81±0.45	-2.14 (.034)
	No	28(19.0)	3.53±0.37		3.60±0.48	
Assigned before	Yes	45(30.6)	3.69±0.37	-1.44 (.152)	3.85±0.44	-1.5 (.150)
	No	101(68.7)	3.58±0.41		3.73±0.47	
	No response	1(0.7)				
Intention of reassignment	Yes	127(86.4)	3.65±0.42	-2.45 (.015)	3.79±0.45	-1.71 (.090)
	No	17(11.6)	3.40±0.39		3.59±0.49	
	No response	3(2.0)				

## 5.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 변수간 매우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69$ ,  $p<.001$ ). 즉, 연구 참여자의 글로벌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은 심리적 요인의 하부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일하게 글로벌 역량 중 대인 유연성은 심리적 안녕감 중 자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대인 유연성은 봉사단원의 연령이나 직업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Odashi(2015)는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된 교사 중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문제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할 때 해당분야 경력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는 부분이다.

## 6.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글로벌 역량 중 하부요인별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회귀분석 하였다(Table 5). 글로벌 역량의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회귀모형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 변수 선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성별, 학력, 도전정신,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내성이었으며, 이때의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321.82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6,  $p=.540$ 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Lee & Lim, 2012).

해외봉사단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ctors of global compet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actor	CS	CF	GSE	IF	ST	CA	SA	PR	EM	AU	PG	PL
CS	1											
CF	.447** .000	1										
GSE	.535** .000	.401** .000	1									
IF	.051 .536	.163* .049	.021 .804	1								
ST	.435** .000	.173* .037	.463** .000	.066 .428	1							
CA	.234** .004	.167* .043	.362** .000	.157 .058	.273** .001	1						
SA	.456** .000	.294** .000	.516** .000	.089 .283	.536** .000	.243** .003	1					
PR	.406** .000	.189* .022	.434** .000	-.095 .252	.259** .002	.199* .015	.582** .000	1				
EM	.443** .000	.262** .001	.531** .000	-.036 .664	.604** .000	.327** .000	.762** .000	.498** .000	1			
AU	.309** .000	.251** .002	.429** .000	-.344** .000	.329** .000	.226** .006	.367** .000	.314** .000	.447** .000	1		
PG	.508** .000	.241** .003	.502** .000	-.081 .326	.428** .000	.310** .000	.609** .000	.523** .000	.535** .000	.420** .000	1	
PL	.535** .000	.203* .014	.622** .000	-.108 .191	.531** .000	.188* .023	.629** .000	.524** .000	.663** .000	.463** .000	.674** .000	1

Abbreviations: CS, challenge spirit; CF, cognitive flexibility; GSE, global self-efficacy; IF, interpersonal flexibility; ST, stress tolerance; CA, cross-cultural acceptance; SA, self-acceptance; PL, purpose in life; AU, autonomy; EM, environmental mastery; PR,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PG, personal growth.

Table 5. Global competency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reflecting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beta$	S.E.	$t / F$	$p$	
Intercept		1.671	.246	6.784	.000	
Gender	Female	0.107	.057	1.872	.063	
Education	Undergraduates	-0.225	.166	-1.358	.177	
	Bachelor degree	-0.085	.107	-0.796	.428	
	Graduate school	-0.135	.146	-0.928	.355	
	Master degree	0.056	.118	0.48	.632	
Global competency	Challenge spirit	0.138	.047	2.924	.004	
	Global self-efficacy	0.284	.048	5.938	.000	
	Interpersonal flexibility	-0.107	.038	-2.822	.005	
	Stress tolerance	0.211	.046	4.589	.000	
		$R^2=0.594$	Adjusted $R^2=0.566$	$F=21.75$	$p=.000$	

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1.75$ ,  $p<.001$ ), 설명력은 56.6%였다.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별로는 글로벌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내성은 매우 유의하게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 도전정신과 대인 유연성은 다음으로 유의한 정도를 보였다( $p<.01$ ). 반면에, 인지적 유연성과 이문화 수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Kim(2016)의 연구에서 해외봉사단원의 자기 성취도 및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의 목표의식과 환경 지배력에, 대인관계는 자아수용에 영향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해외봉사단원은 현지에서 현지인과 의사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열정을 발휘하면서도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Kim & Jung, 2017). 파견기관은 글로벌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내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FK가 제공하는 해외봉사단원 대상 국내 교육에서는 글로벌 역량으로 현지어, 타문화 이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인성 역량을 위한 극기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나(KOICA, 2017), 짧은 교육기간 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관련 인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역량 요인 중 스트레스 내성과 글로벌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전정신의 유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지의 현장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해외봉사단원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각자의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며, 한 개인으로서 기능하며 삶을 살아간다.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연관성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글로벌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도 높았다.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 중 도전정신,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내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 설명력은 56.6%였다.

WFK는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기 전 국내와 현지에서 각각 8주 동안 인성과 인문학적 역량, 창의적 리더십, 현지어와 문화, 직무, 건강·안전 등을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KOICA, 2017), 짧은 교육기간 내에 스트레스 대처 및 갈등관리, 글로벌 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파견활동 중 해외봉사단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단원 선발 시 선발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해외봉사단원의 상황에 맞게 추후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KOICA가 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 임상심리 분야에서

선발된 코디네이터를 현지 사무소에 일부 파견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심리적 지원에는 못 미치고 있다(Yun, 2014; KOICA, 2015). 2010년 기준, KOICA 현지코디네이터는 1인당 27명의 봉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9명, 미국 평화봉사단 3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2015).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는 KOICA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거기반 관리업무지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파견된 단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해외봉사단원의 파견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해외봉사단원을 임의 추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해외봉사단원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봉사단원의 선발 혹은 파견 전과 파견 후 시점에서 반복연구가 이어질 것과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맞춤형 도구개발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안한다.

## 감사의 글

This manuscript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Chung-Ang University.

## References

- Arnold, Charles B. 1967. Culture Shock and a Peace Corps Field Mental Health Program.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1): 53-60.
- Bhatta, Prakash, Simkhada, Padam, van Teijlingen, Edwin, and Maybin, Susanna. 2009. A Questionnaire Study of Voluntary Service Overseas(VSO) Volunteers: Health Risk and Problems Encountered. *Journal of Travel Medicine*. 16(5): 332-337.
- Choi, Yune Jung and Young Hee Sung. 2013.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589-598.
- Gong, Ja Young. 2015. A Study of Expatriate Global Competency and Job Effect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Expatriate Adjustment.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Hett, E. Jane. 1993.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Global-mindednes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 Hwang, In Ho and Sung Hwa Jang. 2012.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bility Scale and Job Efficienc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232-242.
- Jun, Won Hee, Eun Seon Lee, and Kee Lyong Lee. 2015. Relationships among Gratitud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linical Nurse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4(2): 136-144.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4.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rt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of KOICA. <http://www.oda.go.kr> Seongnam: KOICA (accessed 30/04/2018).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7. Introduction to the WFK-KOV. <http://kov.koica.go.kr/education/edushow/summary.koica> Seongnam: KOICA. (accessed 30/04/2018).
- Kim, Go Un and Hyo Ju Jung. 2017. Phenomenological Study on Overseas Volunteering Experience of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 635-646.
- Kim, Myoung So, Hye Won Kim, and Kyeong Ho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 Kim, Jung Mo. 2016. Effects of Level of Satisfaction of Overseas Taekwondo Volunteers on Their Level of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5(4): 189-205.

- Kim, Young Kuk. 2017. A 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ports Education Corps Membe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Lough, Benjamin J. 2011. International Volunteers' Perception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4): 452-464.
- Lee, Hak Sik and Ji Hun Lim. 2012. *Basic SPSS Manual*. Seoul: Jiphyunjae Publishing Company. 286-306.
- Ohashi, Yukako. 2015. Stress and Stress Management in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 Teachers. Master's Thesis. Osaka Jogakuin University.
- Oh, Danny. 2014.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Motivation for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and Process of Local Adjustment: Focus on Volunteers in Cambodia from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6(3): 373-399.
- Peace Corps. 2016. *The Health of the Volunteer 2016 Annual Report of Volunteer Health*. Washington DC: Peace Corps.
-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2015. Comprehensive Evaluation of KOICA WFK Program. <http://lib.koica.go.kr/search/tot/result?pn=2&q=WFK&st=KWRD&si=TOTAL> Seongnam: KOICA. (Accessed 30/04/2018).
- Roh, Sang Choong, Hong Sik Jung, and Yong Won Suh.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lobal Competency Scale(GC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5(4): 801-831.
- Ryff, Carol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hin, So Young and Eun Mi Noh. 2013. Developing a Measurement Tool for Global Competence and Assessing Its Adequ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2): 339-359.
- Sung, Min Jung. 2006. Influence of Volunteer Management on Overseas Volunteers'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van Der Zee, K. I., & van J. P. Oudenhoven. 2000.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of Multicultural Effective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4): 291-309.
- Youm, Gun Ie. 2007.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of Overseas Volunteering Service Activity and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Oversea Volunteering: The Activity of KOICA.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 Yun, Hyoung Hak. 2014. The Impact of Overseas Volunteer's Role Stress and Interpersonal Stress on the Volunteer Activity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공자영. 2016. 주재원의 글로벌 역량과 직무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문화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글로벌발전연구원. 2015. KOICA 해외봉사단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http://lib.koica.go.kr/search/tot/result?pn=2&q=WFK&st=KWRD&si=TOTAL>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고운, 정효주. 2017. 간호사의 해외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 635-646.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19-39.
- 김영국. 2017.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체육교육봉사단원의 국제개발협력활동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모. 2016. 해외 태권도 봉사자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 및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189-205.
- 노상충, 정홍식, 서용원. 2012. 글로벌 역량 척도 (GCS)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801-831.
- 성민정. 2006. 해외자원봉사자 관리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소영, 노은미. 2013.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양호도 검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2): 339-359.
- 염건이. 2007. 해외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단이. 2014. 국제자원활동 동기 및 현지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373-399.
- 윤형학. 2014. 해외자원봉사자의 역할스트레스와 대인관계스

- 트레스가 자원봉사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12. Basic SPSS Manual. 서울: 집현재. 286-306.
- 전원희, 이은선, 이기령. 2015. 임상간호사의 감사성향,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24(2): 136-144.
- 최윤정, 성영희. 2013. 임상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9(5): 589-598.
- 한국국제협력단. 2014. ODA 정보포털. KOICA의 개발협력사업. <http://www.oda.go.kr>.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7. KOICA 봉사단. <http://kov.koica.go.kr/education/edushow/summary.koica>.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황인호, 장성화. 2012. 교사의 심리적안녕감, 공감능력, 직무효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232-242.

---

Received: May 27, 2018 / Revised: Jul. 19, 2018 / Accepted: Jul. 23, 2018

##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글로벌 역량 요인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해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월드프렌즈코리아 단원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자는 147명이었다.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은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하부요인 중 이문화 수용과 도전정신이 높게 측정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단원의 삶의 목표와 개인적 성장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 중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내성, 도전정신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나 이는 해외봉사단원 선발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향후, 해외봉사단원 맞춤형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심리적 안녕감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글로벌 역량, 봉사자, 심리적 안녕감, 해외봉사

---

**Profiles** **Yeon Yun** : She received her M.S.N. from Chung-Ang University. She is a doctoral candidate at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She is working as a part-time instructor of Department of Nursing at Dongnam Health University(myeyonyun@gmail.com).  
**Og Cheol Lee** : She received her M.P.H.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from Yonsei University in 2000, and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 at Center for Refugee and Disaster Response, Johns Hopkins University during 2003. She is a professor of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leeoc@cau.ac.kr).